

# 고위험 학대피해 경험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요인

최유남 · 김지연 · 신지인

경북대학교 간호대학원

## Factors Influencing Ego-resilience in Adolescents Suffering from High-risk of Abuse

Yoonam Choi · Jiyeon Kim · Jiin Shin

College of Nursing, Graduate School,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influence ego-resilience among adolescents who have experienced abuse by parents in South Korea. **Methods:** This correlational study used the 4th year cross-sectional data of the seventh-grade middle school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in fourth grade. Data analysis was performed by using SPSS/WIN 23.0 program, which included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s coefficient, and hierarchical regression. **Results:** The results of the hierarchical regression of model 5 revealed that the quality of peer relations played the most significant role in predicting ego-resilience of abused adolescents, followed by self-identity. Also, self-esteem, the quality of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excessive expectations from parents, and community awarenes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variance of self-resilience in abused adolescents. This regression model explained 42% of the variance.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that ego-resilience, an asset and resource to help adolescents overcome adverse effects of abuse, was influenced by social environment as well as individual factors. In addition, social support from peers and teachers had greater influence on ego-resilience than support from family members. Thus, the factors identified in this study need to be considered in programs designed to improve ego-resilience as well as in policies for abused adolescents.

**Key Words:** Adolescent, Abuse, Ego-resilience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으로 다양한 발달과업이 이루어지며, 신체적, 심리적, 환경적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타인과 상호작용이 증가하면서 주변 환경의 영향을 쉽게 받으며[1], 입시 위주의 경쟁적인 교육문화와 성적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높은 스트레스, 우울감 등의 심리적 문제를 호소하며, 다양한 형태의 부적응 상태에 놓이기 쉽다[2]. 특히 청소년기의 환경요인 중 부모 등의 보호자에 의한 학대경험은 이후 청소년의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3].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2001년은 2,105건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에는 11,709건으로 약 5.5배 이상 증가하였고, 만 7세부터 12세까지 아동과 중학생에 해당하는 만 13세부터 15세까지 학령기 아동의 비율이 62.6%로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학대 행위자의 77%는 친부모인 경우가 대

Corresponding author: Jiin Shin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680 Gukchaebosang-ro, Jung-gu, Daegu 41944, Korea.  
Tel: +82-53-421-4937, Fax: +82-53-421-2758, E-mail: angcomi@knu.ac.kr

Received: Dec 8, 2017 / Revised: Feb 8, 2018 / Accepted: Feb 8, 2018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부분을 차지하여, 부모에 의한 학대 수준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4]. 따라서 우리나라의 청소년 인구 중 가정 내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며, 이러한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학대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주 양육자인 부모에 의해 학대를 받은 청소년은 낮은 자아 존중감, 자신의 감정 통제의 어려움, 우울, 공격성, 사회적 위축, 학교폭력이나 비행에의 노출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부적응 행동을 갖게 된다[5]. 또한 가족 안에서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를 갖지 못한 청소년의 경험은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주어 부정적이고 왜곡된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반사회적 행동을 초래하는 등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발전해 나아가는데 있어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6]. 하지만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이라도 긍정적인 적응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는 보호 기제를 가진 경우, 가정 내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적으로 적응한다는 연구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다[2,5,7].

자아탄력성은 개인이 가진 긍정적 보호 기제의 하나로서, 심각한 위험환경에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경과 고난에 잘 적응하고 이전의 적응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6], 대처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불안에 대한 민감성을 낮추고 삶에 대한 긍정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간주되어 학대 청소년의 적응과 관련된 연구에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8]. 지금까지 학대와 자아탄력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청소년의 학대피해경험으로 인해 유발되는 비행, 폭력, 학업성취, 학교생활 적응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완충시키는 매개변인으로서의 자아탄력성의 역할을 살펴보거나[2,7,9], 학대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개인 및 환경특성만을 고려한 단편적인 연구들[5,6,10]이 대부분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은 환경과 분리하여 이해될 수 없고, 청소년 역시 자신이 속한 환경과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한다. 특히 고위험 환경에 놓여있는 학대 청소년의 적응은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형성되며 지속성을 가지므로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자아탄력성과 발달환경에 관계를 고려한 생태학적 접근의 연구가 필요하다. 생태학적 관점[11]은 개인이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실체이며, 환경은 최인접 환경뿐만 아니라 더 큰 맥락까지를 포괄하며, 나아가 인간과 환경은 상호 호혜적인 관계에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인간발달 연구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 생태학적 모형에 따르면, 청소년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며 영향을 받는데, 그 환경은 청소년이 인접한 환경인 미시체계(microsystem)로부터 중간체계(mesosystem), 외체계(exosystem), 그리고 거시체계(macrosystem)에 이르는 4체계가 한 구조 안에 다음 구조가 각각 끼어들어가 있는 위계적 구조로 언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전체 환경 맥락 속에서 파악하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개인적 특성, 가족, 학교 및 지역사회 등의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학대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향상을 위한 효과적 개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학대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시행하였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이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개인, 가족, 학교 및 지역사회 요인의 정도에 대해 파악한다.
- 대상자의 개인, 가족, 학교 및 지역사회 요인과 자아탄력성의 상관관계에 대해 파악한다.
- 대상자의 개인, 가족, 학교 및 지역사회 요인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한다.

##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학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태학적 관점에서 개인, 가족, 학교 및 지역사회 요인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로 201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원시자료를 이용한 이차분석 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 매년 추적 조사하는 단기종단 패널조사인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데이터 중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4차년도 2013년 중학교 1학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층화 다단계집락표집법에 의해 표본학교의 추출은 16개 광역시·도와 도시규모(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를 교차하여 추출한 27개 집락별로 확률비례추출법에 의거하여 조사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학교별 해당학년의 학급 수와 학급별 학생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뒤 무작위로 표본학급을 선정하였다. 조사대상 학교 수는 한 학교 당 한 학급씩, 학급 학생 전원을 조사하되 조사성공률을 80%로 예상하여 산출하였다. 대체표본 추출은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조사대상 학교 확정, 조사를 거절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목록상의 인접한 다른 학교로 대체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 패널 목표 표본수를 2200명으로 정하고, 2010년 16개 광역시·도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수에 비례하여 할당된 지역별 표본수는 2013년 평균 88%의 지역별 원본표본을 유지하였다. 그 결과 2010년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표본 사례 수는 95개 표본학급의 2,378명이었다.

본 연구는 2010년 초등학교 4학년 패널로 선정된 표본을 대상으로 1차년도 학교방문을 통한 집단면접조사가 실시된 이후 동일한 패널을 대상으로 개인별 추적을 통한 개별면접조사로 2013년 4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중학교 1학년 2,092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비 응답자와 응답에 결측이 있는 연구대상을 제외한 총 1766명에서 Lee 등[12]과 Lee [13]가 제시한 학대의 기준을 근거로 하여 학대 총점 평균의 상위 25%에 분포한 대상자를 부모로부터 학대피해 고위험에 놓인 학대 청소년으로 규명하고, 전체 연구대상 청소년(1766명) 중 721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3. 연구도구

#### 1) 개인요인

본 연구에서 개인요인은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성으로 측정하였다. 자아존중감은 Rogenberg [14]가 개발하고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15]에서 발간한 심리척도해드북에서 활용한 자존감척도를 참고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16].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등 총 10문항으로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Likert 4점 척도이며, 측정값을 역으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62였다.

자아정체감은 Song [17]이 개발한 5개 하위영역 27개 문항

으로 구성된 도구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8문항으로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16].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 5개 하위영역 27개 문항 중 미래확신성에서 1문항, 목표지향성에서 2문항, 주도성에서 3문항, 친밀성에서 2문항,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의 Likert 4점 척도이며, 측정값을 역으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Song [17]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3, 본 연구에서 .63이었다.

#### 2) 가족요인

가족요인은 부모의 양육방식으로 측정하였다. Huh [18]가 개발하고 타당도를 검증한 부모양육행동 척도 총 43문항을 활용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원 척도의 부와 모 각각에 대한 질문을 부모에 대한 질문으로 수정한 후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한 21문항을 사용하였고, 감독, 애정,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합리적 설명 6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있다 [16].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의 Likert 4점 척도이며 측정값을 역으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양육방식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Huh [18]의 연구에서 아버지 척도 .70~.86, 어머니 척도 .75~.82로 나왔으며,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7이었다.

#### 3) 학교요인

학교요인은 또래관계의 질과 교사관계의 질로 측정하였다. Hwang [19]이 Armsden과 Greenberg [20]가 제작한 애착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를 4점 척도화한 것을 참고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구성한 문항을 사용하였다[16]. 총 25문항 중 하위영역별로 중복된 문항을 제외하고 의사소통, 신뢰, 소외감 각 하위영역 당 3개 문항씩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문항은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의 Likert 4점 척도이며, 의사소통 및 신뢰에 대해서 역채점을 수행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와의 의사소통, 신뢰수준, 소외감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Hwang [19]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6이었다.

교사관계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Min [21]이 개발한 학교생활적응척도를 Jung [22]이 활용한 척도 중 교사관계에 대해 측정된 5개 문항을 참고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구성한 문항을 사용하였다[16].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의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며 모든 문항에 대해 역채점을 수행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교사와 긍정적이며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Jung [22]의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4였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0이었다.

#### 4) 지역사회 요인

지역사회 요인은 청소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및 공동체 지지에 대해 가지는 인식을 측정하였다. 1996년 미국 청소년건강 종단연구 ADD health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to Adult Health)의 문항[23]을 번안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정·보완한 문항을 사용하였다[16]. 총 6문항으로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4점까지의 Likert 4점 척도이며, 측정값을 역으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지역 및 공동체 지지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75였다.

#### 5) 학대

Huh [18]와 Kim [24]의 아동학대 문항을 참고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정·보완한 4문항을 사용하였다[16].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4점까지의 Likert 4점 척도이고, 측정값을 역으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학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6이었다.

#### 6) 자아탄력성

Block과 Kreman[25]가 개발한 자아탄력성 도구를 Yoo와 Shim[2]이 번역한 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정·보완한 척도를 활용하였다[16]. 총 14문항으로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의 Likert 4점 척도로 측정값을 역으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Block과 Kreman [25]의 연구에서 .76, Yoo와 Shim [2]의 연구에서 .67,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개인, 가족, 학교 및 지역사회 요인에 대해서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에 대한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two-sample t-test,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사후 분석으로 Scheffé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셋째,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실시하였으며, 대상자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초등학교 4학년 패널 4차년도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데이터 아카이브에서 제공하며, 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통계자료는 식별이 불가능한 고유번호로 수집되어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없고, 익명성과 기밀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연구 윤리심의위원회의 면제(승인번호 2017-0108) 후 연구가 진행되었다.

##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남학생 402명(55.8%)이 여학생 319명(44.2%)에 비해 많았으며, 아버지의 학력은 대졸 348명(48.3%),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 이하가 347명(48.1%)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구조는 양부모 가족이 658명(91.3%)으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형제관계는 1명 이상이 537명(74.5%)으로 가장 많았다. 가정 경제수준은 한 달 수입이 200~399백 만원이 332명(46.0%), 400~599백 만원(32.5%) 순으로 많았고, 질병유무는 질병이 없는 군이 613명(85.0%), 주관적인 건강상태 지각상태로는 건강하다고 지각하는 군이 673명(93.3%)으로 많았다. 팬덤활동은 활동군이 383명(53.1%), 비활동군이 338명(46.9%)으로 비슷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차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아탄력성이 높았고( $t=2.84, p=.005$ ),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에서 건강하다고 응답한 군의 자아탄력성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4.03, p<.001$ ).

### 2. 대상자의 개인, 가족, 학교 및 지역사회 요인의 정도

대상자의 개인, 가족, 학교 및 지역사회 요인의 정도는 Table

**Table 1.** Difference in Level of Self-resilience of Abused Adolescent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72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Self-resilience of abused adolescents		
			M±SD	t or F	p
Gender	Female	319 (44.2)	2.97±0.47	2.84	.005
	Male	402 (55.8)	2.89±0.39		
Father's educational background	Below high school	298 (41.3)	2.95±0.48	0.27	.765
	University	348 (48.3)	2.92±0.40		
	Above graduate school	36 (5.0)	2.91±0.37		
Mother's educational background	≤ High school	347 (48.1)	2.94±0.47	0.45	.637
	University	319 (44.2)	2.93±0.37		
	≥ Graduate school	18 (2.5)	2.85±0.05		
Family structure	Both parents family	658 (91.3)	2.94±0.43	1.04	.374
	Single parents family	58 (8.0)	2.88±0.51		
	Grandparents family	5 (0.7)	3.25±0.42		
Number of siblings	≤ 1	537 (74.5)	2.94±0.44	1.28	.203
	≥ 2	184 (25.5)	2.90±0.42		
Economic status (10,000 won/month)	< 200	89 (12.3)	2.89±0.51	1.48	.220
	200~399	332 (46.0)	2.93±0.44		
	400~599	234 (32.5)	2.97±0.41		
	≥ 600	66 (9.2)	2.86±0.38		
Disease	Nonexistence	613 (85.0)	2.94±0.44	0.88	.379
	Existence	108 (15.0)	2.90±0.43		
Subjective health status	Unhealthiness	48 (6.7)	2.69±0.38	-4.03	< .001
	Health	673 (93.3)	2.95±0.43		
Fandom activity	No	338 (46.9)	2.94±0.44	0.27	.789
	Yes	383 (53.1)	2.92±0.43		

2와 같다. 개인요인으로 자아정체감의 평균은  $3.09 \pm 0.48$ 이었고, 자아존중감의 평균은  $2.70 \pm 0.35$ 점이었다. 가족요인으로 부모의 양육방식의 평균은  $2.83 \pm 0.55$ 점이었고, 하위 항목의 평균평점은 감독  $3.13 \pm 0.55$ 점, 애정  $2.91 \pm 0.54$ 점, 비밀관성  $2.67 \pm 0.57$ 점, 과잉기대  $2.78 \pm 0.57$ 점, 과잉간섭  $2.61 \pm 0.57$ 점, 합리적 설명  $2.80 \pm 0.58$ 점이었다. 또래관계의 질은  $2.82 \pm 0.41$ 점이었고, 하부 항목 중 신뢰가  $3.06 \pm 0.57$ 점으로 가장 높았다. 교사관계의 질은  $2.83 \pm 0.63$ 점이었고, 지역사회 인식은  $2.68 \pm 0.50$ 점이었다.

### 3. 대상자의 개인, 가족, 학교 및 지역사회 요인과 자아탄력성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자아탄력성과 개인, 가족, 또래, 교사 및 지역사회 요인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자아탄력성은 자아정체감( $r = .44, p < .001$ ), 자아존중감( $r = .35, p < .001$ ), 부모의 양육방식( $r = .42, p < .001$ ), 또래

관계의 질( $r = .39, p < .001$ ), 교사관계의 질( $r = .39, p < .001$ ), 지역사회 및 공동체 지지( $r = .32, p < .001$ )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대상자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대상자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5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우선 1단계에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단변량 분석에서 자아탄력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성별과 주관적 건강상태를 투입하였고, 다음 단계에서는 개인요인인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 가족요인, 학교요인, 지역사회 요인 각각을 순차적으로 각 모델에 투입하여 요인들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검증한 결과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는 .19~.49로 .60 이상인 변수가 없어서 영향변수들이 독립적임을 확인하였고, 공차한계는 .75~.96로 0.1 이상이었으

**Table 2.** Individual, Family, School, and Community Factor of Abused Adolescents (N=721)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Min	Max	Skewness	Kurtosis
Individual factor	Self-esteem	2.70±0.35	1	4	0.81	1.63
	Self-identity	3.09±0.48	1	4	0.60	2.22
Family factor	Parental rearing style	2.83±0.55	1	4	0.41	2.23
	Supervision	3.13±0.55				
	Affection	2.91±0.54				
	Inconsistency	2.67±0.57				
	Excessive expectation	2.78±0.57				
	Over-involvement	2.61±0.57				
	Rational expectation	2.80±0.58				
School factor	Quality of relationship with peer	2.82±0.41	1	4	0.31	2.31
	Communication	3.03±0.52				
	Trust	3.06±0.57				
	Alienation	2.36±0.70				
	Quality of relationship with teacher	2.83±0.63	1	4	0.24	1.56
Community factor	Community awareness	2.68±0.50	1	4	-0.09	1.44

**Table 3.** Correlation among Individual, Family, School, Community Factors, and Self-resilience of Abused Adolescents (N=721)

Variables	1	2	3	4	5	6	7
	r (p)	r (p)	r (p)	r (p)	r (p)	r (p)	r (p)
1. Self-esteem	1						
2. Self-identity	.40*	1					
3. Parental rearing style	.34*	.42*	1				
4. Quality of relationship with peer	.24*	.32*	.49*	1			
5. Quality of relationship with teacher	.20*	.31*	.31*	.30*	1		
6. Community awareness	.19*	.25*	.37*	.32*	.34*	1	
7. Self-resilience	.35*	.44*	.42*	.39*	.39*	.32*	1

\*p < .01

며 분산팽창지수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도 최대값이 2.57로 기준인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잔차의 가정을 충족하기 위한 검정결과 잔차의 정규성, 등분산성, 선형성의 가정도 모두 만족하였으며 자기상관성 검증에서 Durbin-Watson 통계량도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이값을 검토하기 위한 Cook's Distance의 최대값도 0.41로 1.0을 초과하는 값이 없어 특이값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1단계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를 투입한 결과 자아탄력성을 3% 설명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beta = -.10, p < .001$  &  $\beta = .14, p < .001$ ). 2단계로 개인요인으로 자아정체성과 자아존중감을 투입한 결과 자아탄력성을 24% 설명

하였고, 주관적 건강상태( $\beta = .12, p < .001$ ), 자아존중감( $\beta = .21, p < .001$ )과 자아정체감( $\beta = .34, p < .001$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3단계 가족요인을 투입한 결과 입력된 변수의 수를 고려한 수정된 R<sup>2</sup>은 31%로 2단계에 비하여 7% 증가하였고 부모의 양육방식의 하부요인 중 감독( $\beta = .13, p < .001$ ), 애정( $\beta = .15, p < .001$ ), 과잉기대( $\beta = .18, p < .001$ )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4단계 학교요인으로 또래 및 교사관계의 질 변수를 투입한 결과 입력된 변수의 수를 고려한 수정된 R<sup>2</sup>은 40%로 3단계에 비하여 9% 증가하였고, 또래와의 의사소통이 잘될수록( $\beta = .11, p < .001$ ),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beta = .15, p < .001$ ), 소외감이 적을수록( $\beta = -.10, p < .001$ ), 교사와 우호적인 관계를 가질수록( $\beta = .16, p < .001$ ) 학대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Table 4.** Factors Influencing Self-Resilience of Abused Adolescents

(N=721)

Characteristics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B	β	B	β	B	β	B	β	B	β
General characteristics †	Gender	-.08	-.10*	-.02	-.03	-.02	-.02	-.03	-.03	-.02	-.02
	Subjective health status	.25	.14***	.21	.12***	.19	.11***	.14	.08**	.13	.08**
Individual factor	Self-esteem			.29	.21***	.23	.16***	.20	.14***	.19	.14***
	Self-identity			.37	.34***	.29	.27***	.26	.24***	.26	.24***
Family factor	Parental rearing style										
	Supervision					.10	.13***	.04	.05	.03	.05
	Affection					.12	.15***	.06	.07	.05*	.08
	Inconsistency					-.02	-.02	-.01	-.01	-.01	-.01
	Excessive expectation					.14	.18***	.10	.13***	.10	.13**
	Over-involvement					-.06	-.07	-.03	-.03	-.03	-.04
	Rational explanation					-.02	-.03	-.01	-.01	-.01	-.02
School factor	Quality of relationship with peer										
	Communication							.09	.11*	.10	.10*
	Trust							.12	.15***	.11	.12*
	Alienation							-.06	-.10**	-.07	-.11***
	Quality of relationship with teacher							.11	.16***	.10	.14***
Community factor	Community awareness									.09	.10**
F (p)			11.62 (<.001)		57.54 (<.001)		33.77 (<.001)		36.00 (<.001)		34.70 (<.001)
Adj. R <sup>2</sup>			.03		.24		.31		.40		.42

\*p < .05, \*\*p < .01, \*\*\*p < .001; † Dummy coded (Gender\_Women=0, Subjective health status\_Unhealthiness=0).

요인 변수를 투입한 최종 모델 5를 보면 수정된 R<sup>2</sup>은 42%로 4 단계에 비하여 2%증가하였고 지역 및 공동체 지지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β=.10, p<.001)은 학대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는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학대라는 부정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자아탄력성에 개인, 부모, 친구, 교사 및 지역 사회 요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기초로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제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효과적 개입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학대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스트레스 상황에 취약하며[26], 탄력적인 집단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분포되었다는 Cho와 Lee [10]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 한편, 부모의 학력

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 형제 자매 수는 학대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 내에서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지각한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형제 자매의 수가 많을수록 자아탄력성의 수준이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12]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학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인구사회적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추후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학대 청소년은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에 따라 자아탄력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질병의 유무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관적 건강이 자아탄력성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1,8]. 이는 실제 가지고 있는 질병의 유무보다 자신의 건강과 관련된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개입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전달을 통해 자신의 건강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제공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대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

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중심으로 각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또래관계의 질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아정체감, 교사관계의 질, 자아존중감, 부모의 양육방식 중 과잉기대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피해대 위험군 아동의 사회적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자아효능감, 책임감, 교사지지, 친구지지 순으로 제시한 Cho [5]의 연구결과와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연구[27]에서 제시한 가족건강성, 담임교사의 지지, 친구의 지지 순으로 제시한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가족, 또래, 교사지지는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의 부적응을 완화시킬 수 있는 주위환경과 대인관계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로서, 본 연구에서는 또래의 영향력이 부모 및 교사의 지지보다 높게 나온 결과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학대 및 가정 폭력과 같은 문제를 가진 건강하지 못한 가정 내에서 청소년은 지지적 양육을 제공받기 어려우며, 초기 청소년기에는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면서 또래가 사회적 관계의 중심이 되어가는 과도기적 특성을 가진다[1]. 또한, 또래집단은 과도기적 상태에 있는 청소년이 당면한 문제와 고민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존재로서, 원만한 또래관계의 형성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긍정적인 자존감과 정체성에 큰 영향을 받으며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정서적 심리적 안정과 지지를 제공한다[2].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학대 청소년은 또래와 밀착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가정에서 겪은 스트레스와 정서적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고, 가정 내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정서적 지원을 또래와의 밀착된 관계를 통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희망과 믿음을 획득함으로써 자아탄력성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중학교 1학년은 새로운 학급동료관계를 형성하는 시기로서 또래로부터 수용되거나 거부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며[2], 본 연구에서 학대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또래관계의 구체적 속성이 신뢰와 소외, 의사소통 순으로 제시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학대 청소년이 효율적인 또래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통해 긍정적 자존감과 정체성을 형성시키고, 집단 따돌림을 감소시켜 부정적인 적응을 다루어 나가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또래 집단과의 협동 학습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일관적이고 안정적인 생각으로서 자아정체감은 본 연구에서 또래관계의 질 다음으로 두 번째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이 자아탄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요인임을

보고한 Kim과 Kim [1]의 연구결과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사회적 적응이 향상된다는 선행연구[28]의 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 신체와 인지기능의 급격한 성장과 발달로 인하여 아동기 때 확립했던 자신의 이미지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중학생은 자신과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자아정체감을 확립해야 하는 발달과제에 직면하게 되며, 가정환경 중에서도 심리적 환경인 부모양육행동을 통해 자아정체감 발달과정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 이 시기에 부모로부터 지나친 학대를 받는 것은 건강한 자아정체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자아정체감이 낮은 청소년들은 높은 청소년에 비해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나 삶의 문제 상황에 직면할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자신의 삶의 목표를 스스로 모색해나가는 경향이 떨어진다고 하였다[5]. 따라서 자아정체감은 학대 청소년이 자신의 처해있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자아탄력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중재 가능한 변수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학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의 보호요인으로 자아정체감을 제시하거나 자아정체감 증진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가 부족하고 더욱이 국내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그러므로 자아정체감이 학대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의 주요한 영향요인임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반복 연구와 가정에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대 청소년들이 신체적, 대인적, 사회적, 문화적 등의 과정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일관성 있는 자기를 형성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영향요인은 교사관계의 질로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일반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또래와 더불어 교사를 제시한 Jung과 Lim [2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교사는 단순히 학생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대상이 아닌 인생의 모델이 되며 학생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발달해 가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부적절한 가정환경에 노출된 청소년의 가족 밖 환경에서의 지원과 관심은 중요한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선 대부분의 교사들이 주로 학업성취만을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개입을 하는 실정이지만,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첫 번째 사회적 맥락이 학교라는 점을 감안해볼 때 학교현장에서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들이 적극 이루어질 필요성이 절실하다. 따라서 교사와 전문가가 개입하여 학생들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거나 구체적인 문제해결기술(problem solving skill)을 배우게 돕게 하는 등의 프로그램 개발하여 학교 내 체험활동 등을 통해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방식 중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과 같은 긍정적 부모양육행동은 학대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요인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부정적 부모양육행동인 과잉기대가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변수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 자율적, 합리적 설명이 많을수록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높아지고, 처벌, 과잉기대, 비일관적인 양육태도가 클수록 자아탄력성은 낮아진다는 선행연구들 [27,29]과는 다른 결과로서,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인 과잉기대를 인식하는 정도와 내용이 일반 청소년들과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학대 청소년의 경우 심리적 공핍감에 사로잡혀 열등감, 정체감의 결여, 낮은 자존감 등의 문제에 당면하기 쉽고, 부모가 자신의 능력에 비해 과도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는 행동은 오히려 학대 청소년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애착과 배려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차이의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긍정적 및 부정적 양육태도가 학대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지만, 선행연구 상당수가 부정적인 부모 양육행동 또는 긍정적 부모 양육행동 등과 같이 특정한 한 가지 유형의 양육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도 사료된다. 이러한 접근법은 부모와 자녀 간에 일어나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부모행동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킬 수 있으며, 가정에서 학대를 경험하는 자녀에게 부모의 다양한 양육행동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데 부족하다 생각한다. 따라서 추후 학대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부모의 다양한 양육태도와 관련한 반복 연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은 다소 미약했으나, 학대 청소년이 지역 및 공동체의 지지를 더 많이 받는다고 인식할수록 자아탄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지지와 친구와 교사를 제외한 공적/사회적 지지는 가정 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의 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Kwon 등[30]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관계하는 이웃이나 성직자, 사회복지사 등으로부터 관심과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목적의식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자아탄력성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다루어져 왔던 또래와 교사의 관계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인식하는 지역사회와의 관계도 학대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의 중요한 변인으로 검증되었으므로 지역사회에 대한 개입에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학대 청소년의 긍정적인 적응과 발달에 필수요소인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부모, 또래, 교사 및 지역

사회 변인을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다루고 구체적으로 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원방안이나 연구 방향 등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학대 청소년의 긍정적인 적응과 발달을 위해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의 공조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체계화되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대 청소년, 학교, 가정, 지역사회와의 연대 그리고 또래와의 관계를 개선해줄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인 개입으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학대의 수준을 청소년의 지각 정도에 따라 측정하였으므로 실제 학대 사실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학대경험의 기준 또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였으나 임상적으로 학대라고 판단될 수 있는 수준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구조화된 면담과 같은 보다 정교한 조사방법을 활용한 연구를 통해서 학대경험의 시작 연령, 지속 기간, 강도 등 다양한 특성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패널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연령별로 학대 아동 및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비교해서 관련된 변인을 지속적으로 분석 비교해보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사용한 질문지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였고, 종단조사의 특성상 다양한 요인을 측정하고자 하면서도 일부 도구의 경우 문항의 수와 내용이 수정된 부분이 있었고 측정하고자 하는 변인들의 다양성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그 결과 도구의 타당도 확보의 어려움과 본 연구에서 자아정체성과 자아존중감 등의 일부 척도의 신뢰도가 낮게 나온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타당화된 측정도구와 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척도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

##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학대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요인으로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또래, 교사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와 같은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어 학대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체계의 중재전략이 중요하며, 학대경험 청소년의 이후 적응과정에 대한 책임이 단지 청소년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속한 학교와 지역사회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결과로 사료된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는

교과활동 및 체험활동 시, 또래와의 관계 형성과 유지를 통해 긍정적 자존감과 정체성을 지지할 수 있는 또래 집단의 협동학습 기회제공을 늘리고, 현재 청소년이 당면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교사는 가정 내 학대를 경험하는 청소년의 개별적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학업 및 학교생활에 대해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수행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또래와 교사 등 대인관계에서 안정적 적응을 이루도록 도와주며, 이미 경험한 부정적 양육행동의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는 개인 내재적 요인으로서 자아정체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

## REFERENCES

- Kim JY, Lee JH, Eun SH, Eun BL, Nam SO, Song MK.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headaches. *Journal of the Korean Child Neurology Society*. 2010;18(1):58-65.
- Han HA, Doh HS. The effects of family risk factors, ego-resilience and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on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008;29(1):87-101.
- Seo JS, Lee DH. Mediating effect of self-ident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behavior and adolescents' subjective well-being.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010;11(4):1599-1622. <https://doi.org/10.15703/kjc.11.4.201012.1599>
- Kil HJ. Statistics on child abuse status. *Education Policy Forum*. 2016;275:31-34.
- Lim YM. Exploration of variables effecting on poor adolescents' self-resilience and self-esteem: Focusing on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and the quality of peer and teacher relationships. *Korean Journal of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013;25(2):147-167.
- Jo EJ. Protective factors for social resilience of risk group of abused children: Comparison between risk group of abused children and normal children. *Forum for Youth Culture*. 2014; 39:177-208. <https://doi.org/10.17854/ffyc.2014.07.39.177>
- Bae HO. Impact of abuse experience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Mediating factor of resilience.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2010;14(2):193-217.
- Haase J. The adolescent resilience model as a guide to interventions. *Journal of Pediatric Oncology Nurses*. 2004;21(5):289-299. <https://doi.org/10.1177/1043454204267922>
- Kim EG. Relations of depression, ego-resilience and health behaviors in high school students. *Korean Society School Health*. 2017;30(2):174-180. <https://doi.org/10.15434/kssh.2017.30.2.174>
- Cho YM, Lee S. The influences of children's gender and temperament, maternal behavior and social supports on ego-resilience of 5th and 6th elementary school children.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2013;24(2):169-185. <https://doi.org/10.7856/kjcls.2013.24.2.169>
- Bronfenbrenner U. Toward an experimental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1977;32(7):513-531. <https://doi.org/10.1037/0003-066x.32.7.513>
- Lee HJ, Kim YH, Park NH. A comparative study on family perception between abused children and normal children by kinetic family draw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6;36(2):265-277. <https://doi.org/10.4040/jkan.2006.36.2.265>
- Lee HL. Adversity and positive adaptation of adolescents: The role of resilience [dissertation]. Seoul: Hanyang University; 2007. p. 1-119.
- Rosenberg M. editors.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New York, N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Korea University Behavioral Science Research Center. *Psychological Scale Handbook*. 2nd ed. Seoul: Hakjisa; 2000.
- Youth and Children Data Archive. KCYDS 1st-7th Survey Codebook [Internet]. Seoul: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7 [cited 2017 October 10]. Available from: <http://archive.nypi.re.kr>
- Song HO. A structural analysis of the variables related to adolescents' ego-Identity [dissertation]. Daegu: Keimyung University; 2009. p. 1-142.
- Huh MY. The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arenting behavior inventory' perceived by adolescent [dissertation].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1999. p. 1-92.
- Hwang MK.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peer attachment of multi-culture children and social anxiety [master's thesis]. Busa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2010. p. 1-65.
- Armsden GC, Greenberg MT.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987;16(5):427-454. <https://doi.org/10.1007/bf02202939>
- Min BS. The effect of school adaptation and self-concept on academic performance, [master's thesis]. Seoul: HongIk University; 1991. p. 1-58.
- Jung HS. The influence of attachment to mother and school life adjustments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optimism [master's thesis]. Seoul: Dankook University; 2009. p. 1-59.
- Carolina Population Center. ADD Health [Internet]. USA: CPC; 2009 [cited 2017 October 10]. Available from:

- <http://cpu.unc.edu/projects/addhealth>
24. Kim SW.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abused children's adjustment [master's thesi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3. p. 1-81.
  25. Block J, Kremen AM.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96;70(2):349-361. <https://doi.org/10.1037//0022-3514.70.2.349>
  26. Lee YJ. Resilience and protective factors in at risk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002;23(1):1-16.
  27. Choi YJ, Lee SY. Internalization problem, delinquency, and protective factor in poor adolescen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006;21:89-113.
  28. Nam HA, Cho EY.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ego-identity formation of female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Korean Society School Health*. 2016;29(2):107-115. <https://doi.org/10.15434/kssh.2016.29.2.107>
  29. Shin TS, Lee HJ, Kwon HK. Relations among adolescents' perceived parental behaviors, ego-resiliency, and self-esteem. *Journal of Yeolin Education*. 2016;23(3):45-64. <https://doi.org/10.18230/tjye.2015.23.3.45>
  30. Kwon SW, Lee YH, Song IH. A study on adolescent happiness: Application of the adolescent resilience model. *Studies on Korean Youth*. 2010;23(2):39-72.